

올림픽과 국제평화

강 준 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 서울대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장)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2021년 7월 28일 개최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정부와 IOC는 국내 관중만을 대상으로 개최강행을 천명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증가하며 4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자,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일본내 여론이 80%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올림픽 개최를 연기한 IOC(국제 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개최 강행을 천명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국가적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IOC입장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된 올림픽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올림픽은 인류 공통의 문화적 상징이지만, 현실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올림픽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며 거대 자본과 결합하였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유치경쟁이 과열되며 유치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냉전후 올림픽은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올림픽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면서 개최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개최 국가에 재정부담이 커지자 베이징올림픽을 정점으로 올림픽 유치를 원하는 도시가 급감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IOC는 2014년 Olympic Agenda 2020을 발표했다. 올림픽 어젠다 2020의 핵심은 올림픽 개최비용을 최소화하여 개최도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다.

IOC가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현대 올림픽이 급격한 시대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모색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류사적 위기중에 개최된다는 점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패권대결이 시작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본 글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맞아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최고봉인 올림픽을 평화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고대올림픽과 평화

근대올림픽의 모태가 된 고대올림픽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종교적, 문화적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의미이다. 고대올림픽은 제우스신에게 신체적으로 우수한 인간을 바친다는 상징성을 띤 일종의 종교적 제사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원래, 고대 그리스에는 지역별로 크게, 올림피아 제전, 델포이 제전, 네메아 제전, 이스티미아 제전 등 4개의 제전이 있었다. 이 중에서,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엘리스 지방의 올림피아 언덕에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전으로 개최된 올림피아 제전이 고대올림픽의 기원이 되었다. 공식기록에 의하면 올림피아 제전은 기원전 776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올림픽은 AD 393년 로마제국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폐지되 기원전까지 4년 마다 같은 장소에서 총 293회 개최되며 천 년 이상 지속되었다.

고대올림픽은 그리스 시민권을 가진 남자만 참가할 수 있었으며 여자들에게는 경기참관도 불허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출신 도시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훈련, 이동,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했고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을 갖추고 신체가 튼튼한 그리스 남자들이 참가했다. 우승자는 월계관외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얻은 명예를 기반으로 고향이나 다른 행사에서 부를 쌓고 사업도 확장할 수 있었다.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온 음식과 포도주가 넘치고 시인과 여인들이 몰려들어 노래와 음악 연극이 진행되었다. 올림픽 참가자는 그리스 사회에서 나름 선별된 남자로서 당시 여성들에게는 헤라클라스의 분신이자 당시의 아이돌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고대 올림픽은 종교와 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헬레니즘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많은 도시국가로 구성된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도시국가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올림픽이 개최되면 대회 기간은 물론이고 개최 3개월 전부터 도시국가들 사이의 모든 전쟁은 중지되고 일시적인 휴전이 이루어졌다. 도시국가내 어떤 논쟁도 중단되고, 사형도 보류됐다. 또한,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 관전자, 구경꾼들의 안전도 보장되었다. 고대올림픽이 도시국가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올림픽 기간 동안 만큼은 휴전을 하게 함으로써 잠정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피즘(Olympism),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 올림픽(Olympic)

1892년 근대올림픽을 창시한 프랑스 남작,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교육과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당시 고고학을 통해 발굴된 고대그리스 문명 유적중 고대올림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쿠베르탱의 고대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외에도 당시 프랑스 청소년들의 나약한 심신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올림피즘과 올림픽 운동, 그리고 근대 올림픽을 본격적으로 고안하게 되었다.

올림피즘은 올림픽이 지향하는 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류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보편적인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올림피즘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전인적 인간을 지향하고 그러한 인간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편,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은 스포츠를 통해 올림피즘을 전파하는 일련의 행위이고, 올림픽은 올림피즘을 구현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올림픽 현장에 의하면, 올림피즘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잡힌 함양을 통해 전인적 인간발달을 도모하는 삶의 철학으로서,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스포츠를 통해 노력의 기쁨, 훌륭한 본보기의 교육적 가치,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적 원칙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 또한, 올림픽 운동의 목적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않고 스포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평화 추구는 전인적 인간 함양과 더불어 올림피즘에 내재된 핵심가치이자 올림픽 운동의 궁극적 목적이며, 올림픽을 개최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올림픽 현장 첫 머리에 천명되어 있다.

근현대 올림픽과 평화

그러나, 근대올림픽이 창설된 이후 100년간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베를린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1916년 올림픽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됐고, 1940년 올림픽도 중일전쟁으로 도쿄 개최가 무산되며 헬싱키로 개최지가 바뀌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결국 취소되었다. 1944년 런던올림픽도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됐다. 두 번의 세계대전 앞에서 올림픽도 무용지물이었다. 한편, 올림픽은 국가간 전쟁뿐 아니라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는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에 의해 이스라엘선수 9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벌어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냉전시대에 올림픽은 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과 자유진영 국가들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표시로 불참하여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전락했고, 이에 대한 소련과 공산국가들의 보복으로 1984년 LA올림픽은 공산진영국가들이 불참한 가운데 또다른 반쪽 올림픽이 되었다. 결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이후 도래한 냉전시대가 끝날때까지 올림픽은 평화는 커녕 휴전조차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실제 전쟁의 대리전 성격을 띄게 되었다. 도시국가간 종교적 문화적 유사성이 있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비해 20세기는 전 세계적 차원의 국제관계역학이 훨씬 복잡하게 작동하고 문화적 이질성이 컸던 만큼 올림픽이 평화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한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연방이 해체되는 시기와 맞물려 개최된 1988년 서울올림픽은 그때까지 역대 참가국이 가장 많았던 올림픽으로서 탈냉전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구공산권 국가들과 국제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는 올림픽 휴전에 관한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 이후, 올림픽이 국지전이나 내전 차원에서는 휴전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1994년 수단 정부군과 인민해방군 사이의 내전이 잠시 멈췄고, 조지아와 보스니아 민족분쟁에서도 일시적이거나 휴전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2018년 동계올림픽은 북핵위기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가 무력충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창, 도쿄, 베이징올림픽과 동아시아 평화

올림픽이 개최된 경우는 없었다. IOC에서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대륙별 순환개최와 국가별 유치노력, 국가간 역학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우연한 결과다. 세계에서 국제관계 긴장도가 가장 높은 동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연속해서 세 번 개최된다는 것은 올림픽을 통해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모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는 미-중 패권경쟁,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가간 분쟁, 중-일 센카쿠 분쟁, 미-북 핵개발 문제, 한-일 독도 및 위안부 분쟁, 한-중 역사분쟁, 남-북 군사적 대치, 러시아-일본 쿠릴열도분쟁 등 국가간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21세기의 지정학적 블랙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내 갈등과 미-중 패권경쟁이 중첩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림픽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선행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을 연기하거나 잠정적인 휴전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수단을 모색해볼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한중, 일과 IOC가 머리를 맞대고 올림픽 세 번 연속 개최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질곡의 역사로 점철된 한중일 관계를 정치외교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수 있다. 보편적 규칙을 적용하는 스포츠가 좋은 수단인 하나다. 스포츠이벤트의 꽃인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궁극의 가치로 여긴다. 평화는 올림픽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이다. 한중일 세 나라가 상호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역사적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운 유소년 세대라도 함께 땀흘리며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스포츠교류의 장을 올림픽의 유산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올림픽이 인류 평화 증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질서의 와해, 미-중 패권대결 뿐 아니라, 감염병, 기후변화, 양극화 등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과 평화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멀어보일때 가치를 발한다. 인류 공통의 문화적 상징인 올림픽은 어두운 밤의 작은 등불처럼 인류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올림픽이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평화의 가치를 인류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알람과 같은 기능은 할 수 있다.

현재, 인류는 타인과의 공생뿐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 기술과의 공생까지 고민해야 한다. 과연,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 개최된다면 인간, 자연, 기술과의 공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새로운 진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